

자율화 시대의 언더라이팅



김 동 훈
(국민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손보업계의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80년대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를 기초로 한 구미 선진국들의 보험시장 개방 압력을 시작으로 최근 UR협상에 따른 WTO의 출범과 조만간 이루어질, OECD 가입 등 한마디로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최근 그 속도를 더해 그야말로 시장원리에 의한 치열한 경쟁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규모, 담보력, 판매력 및 위험인수능력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취약한 상태에서 감독당국의 과규제와 과보호 등으로 안주해 온 우리 손보업계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러방안 중, 위험인수 즉 언더라이팅 분야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언더라이팅의 의의와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손보업계의 언더라이팅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4장에서는 효율적 언더라이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언더라이팅의 의의와 중요성

언더라이팅이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인수하고자 하는 위

험을 명백히 조사, 분석, 평가하여 그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할 경우 그 위험에 적절한 보험요율, 보험조건, 보유 한도 재보험 방법 등을 정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충실한 언더라이팅은 불량 위험인수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곧 손실을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보험사업 수지의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언더라이팅의 불량이나 미숙은 역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보험사업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요율 부과를 가능하게 하므로 성공적인 보험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3. 우리나라 손보업계의 언더라이팅 실태와 원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은 성공적인 보험사업 영위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자율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여 업적위주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그동안 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험가입자를 위해 손해방지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효율적인 언더라이팅 체계를 확립하지 못해 합리적인 위험인수, 보험요율 보험조건 및 보유액 결정을 못하고, 이는 최근 손보업계 수치 적자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사고의 대형화, 도덕적 위험의 증대, 해외재보험의 역조현상은 개방화 자율화 추세와 맞물려 우리 손보업계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이 경시되어 왔던 이유를 살펴보면

가. 그동안의 경영체제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 중심체제가 아니고 판매실적위주의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이고,

나. 그동안 우리나라 손보업계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판매실적을 올려 보험료만 많이 징수하면 보험료 수입과 그 운용 수익만으로도 높은 손실율에 따른 보

험금 자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사 손실율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영업수지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감독당국의 과보호로 인한 요율조정이 가능하였던 관계로 언더라이팅 등에는 관심을 둘 필요도 없었다.

다. 재보험 거래에 있어서도 의무 출재제도 하에서 출재비율, 보유한도 및 기타 보험조건 등에서 제도적으로 확정시행 해왔던 관계로 원수사 입장에서 인수 위험의 철저한 분석, 평가를 통한 위험인수는 물론 보유한도 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라. 또한, 보험요율체계에 있어서도 일부 특수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협정요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자율적인 요율산정 등 언더라이팅의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없었다.

마. 위에서 열거된 이유로 언더라이팅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언더라이팅 등 위험관련 업무의 기술 축적 및 전문인 양성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4.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한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손보업계의 언더라이팅은 매우 초보적 단계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자율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언더라이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되고 앞

으로 경쟁심화 시대에서의 성공적인 보험기업 수행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과제인 것이다.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가. 외형위주의 경영체제보다는 위험관리위주의 경영체제가 되어야 한다.

자율화 및 개방화 등 손보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호조건 즉, 높은 이자율과 감독당국의 과보호, 과규제정책이 점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견지 해왔던 외형위주의 경영체제보다는 실질적인 위험관리 위주의 경영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평가기준 또한 거수보험료 실적위주에서 수익성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요율의 자율화는 언더라이팅 활성화를 촉진한다.

언더라이팅의 활성화는 요율의 자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무리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요율이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부과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의 의미는 상실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요율의 자율화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급적 협정요율의 범위는 줄이는 동시에 요율체제



또한 등급별로 다양화하는 대신에 범위요율, 권고요율 그리고 개별요율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요율자유화 정책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 언더라이팅 체계의 선진화

(1) 보험종목별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및 조직구성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해당위험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에 익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인수 손해사정 재보험처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양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

더라이팅 조직에 있어서도 등급별로 위험선택 및 거절을 위한 언더라이터의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위험인수 결과를 평가할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와 손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사 및 급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언더라이팅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체 언더라이팅 매뉴얼 개발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무 지침서적 성격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의 특성, 평가방법, 관련법규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언더라이팅 지원 시스템 개발

이는 대량계약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지원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인수규정, 보험요율, 보험조건, 인수시 점검사항, 해당보험종목의 실적 등을 수록하여 위험의 평가 및 인수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를 막고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언더라이팅 정보의 조직내부 축적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에 관한 정보의 내부축적과 내부조직간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언더라이팅에 관한 정보는 손해사정 부문, 보험수지 부문, 위험관리 부문, 마케팅 부문, 회계 부문, 관련보험업무 부문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 및 교환되어야 위험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시장전체환경과 영업상황이 적시에 인지되고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이 가능하

(5) 손해보험업계 언더라이팅 전산망 구축

언더라이팅에 관한 정보의 축적이 미진하고 시장규모가 적은 국내 시장의 경우, 회사별 정보의 축적과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 전체의 자료를 총괄, 축적, 활용하는 업계 공통의 언더라이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대한 공동인식의 형성을 촉진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조절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약관 및 증권의 공동개발, 인수정보 및 불량위험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의 안정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율화 초기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업계 내부의 불공정 담합행위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

래할 수도 있다.

라. 위험관리 체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 및 손실경감

최근 자율화 개방화 등 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뿐 아니라 기상이변 등 자연의 변화까지도 순조롭지 못하여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전되고 복잡화 다양화 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 또한 대형화되고 그 발생빈도 또한 빈번하게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손실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좁은 의미의 위험관리 활동만으로 충분하였으나, 최근 발생손실이 대형화되고 그 발생빈도 또한 빈번하게 되어 사후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실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예방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하고 있는 손실원천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사전예방 및 손실경감 대책을 제시하는 수준높은 방재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방재 정보의 보급 등을 통한 보험사고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위험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험계약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험지식의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언더라이팅 활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확립하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5. 맺는 말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즉 자율화 개방화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시대가 예고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위험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기업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담보력 확충 해외시장 개척, 자산운용 수익확대 등 다양한 경영전략과 함께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형위주의 경영체제 보다는 위험관리 위주의 경영체제, 언더라이팅 전문 인력 양성과 언더라이팅 시스템 개발 등 언더라이팅 체제의 선진화, 사전예방과 손실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체제의 확립 등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언더라이팅 업무를 정착시키고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므로써 전환기적 보험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